

## 지키려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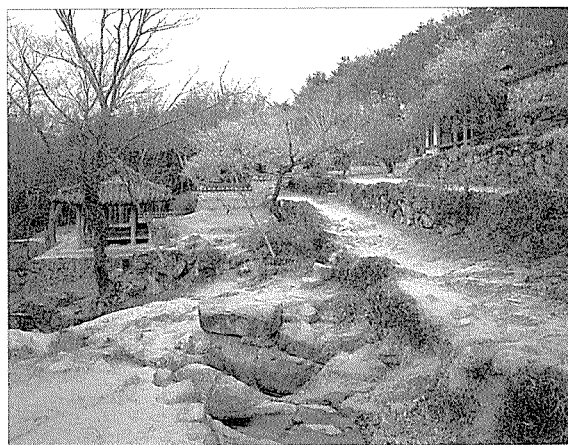
### Continuous Vision

김병윤 / 백제예술대학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by Kim Byung-Yoon

#### 사의적(寫意的)장소의 시작

#### Beginning of a significative place

오월의 하늘은 너무나 많은 일을 알고 있어 그 푸르름이 가득한 기개에도 불구하고 한켠 수심이 보인다. 하늘은 그날 그 오월의 함성이 무거운지 이곳에다 그 푸르른 대나무들을 기르고 있다. 병풍같이 넓고 큰 삼인봉 자락을 뒤로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을 구가하던 평화롭고 온화한 이 지역의 역풍은 아무래도 대나무가 많아서인지 농촌이면서도 기상과 기백을 갖춘 모습으로 걸출한 일들을 받아 낸 흔적이 보인다. 담양호의 지리적인 깊숙한 침입이 전북의 땅에 합당한 듯이 보이는 전남과 전북의 도계에 해당하는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여 죽순회와 낙죽 담양채색 등이 유명하고, 동으로 이웃한 전북 순창은 고추장과 순창 지수 한봉으로,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구례 곡성은 깊은 산세로 산나물이 잘 알려져 있고, 서로 면한 장성은 버섯요리와 황룡강의 천어, 한지, 곳감 등이 유명하다. 남으로는 후백제의 견훤이 장악했던 옛날의 금성일원으로 무등산이 있는 광주, 이 땅의 분단과 더불어 많은 애환을 담은 화순, 보성, 벌곡으로 이어지며 자연이 주는 즐거운 식탁의 찬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 소재원도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농촌의 잔잔한 일상에 가려진 이곳에는 한편 그 오월의 민주화 함성이 들려오는 듯한 강한 지역의 역풍이 불어나 이제는 아픔만큼이나 응어리진 미소가 묻어 나기도 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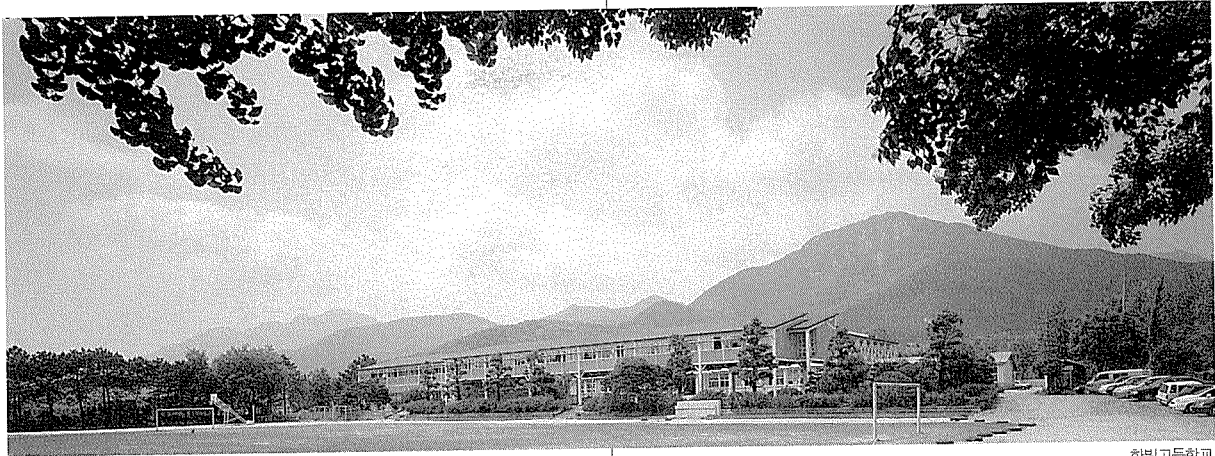


소재원(사진:박영세)

나라의 슬픈 일들이 여기만은 아니지만 대나무, 산채와 농사일만 알던 이곳에 왜이리 유난히도 주변으로부터 속상한 일이 많았던지... 역사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항상 민중이라는 소탈한 건축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건축방편은 이 시대의 한켠에 비친 거울처럼 차가움과 우수를 지녔고, 건축을 묵언으로 보다는 냉소적 표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표현주의의 배경에는 시대를 관찰하는 미술적인 미학이 있다. 한편 작가의 침울한 냉소 뒤에는 어둠보다는 일상의 소중함과 대중미학의 친근함을 담아내려 하는 진중함(Sincerity)이 있다. 무겁게 느끼는 질은 침울함에는 배신의 세월에 대한 절망처럼 다가오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굴레가 보이나 그 비판은 다시 새로운 그들의 어두움으로 들어가 민중의 세월을 보여 주려 한다. 기왕에 작가의 설계의도에 나타난 강한 전언으로 마당이라는 전통요소에 대해서 작가는 한국마당의 일상을 소중히 과거의 등짐처럼 지고 있어 마당의 이름으로 구현된 사고의 실체를 시작으로 들여다 보기로 하자.

소재원(瀟灑園), 깊은 정취와 관조, 인공의 환경이 자연과 합성한 자연친화의 극치이기는 하나 반상의 신분엔 나타난 절제된 거세미학을 한국의 정서가 공유된 삶의 터로써 일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의 전통정원은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본인 자연숭배사상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실사하거나 극치의 자연현상을 담지한 모의적 상징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미 우리의 삼국시



한빛고등학교

대에도 중국의 신선설에 따른 안압지와 같은 정원을 조원하거나 포석정과 같이 향연을 위한 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정원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모사적 정원의 형식을 벗어나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연지형과 암석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인공의 미학을 제하기 시작했으며, 건축과 더불어 조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별서정원(別墅庭園)으로 불리는 유배자의 안식처들은 은둔자의 최후의 즐거움을 자연과 벗하는 것으로 두고 최소한의 자연에 손을 가하여 관조하려하고 있다. 비록 소재원이 중국의 정원을 따르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의 지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정원임에 틀림없다.

작가의 의도에 담긴 寫意的(Significative) 공간의 개념이 이러한 전통정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작가가 언급하고 있는 한국의 국지적 여건속에서 이루어진 마당이라는 특성이 사실적 형상의 실체로서 보다는 의미와 비워진 공백의 다양한 용처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과 작가가 의도한 한국적 마당이란 건축의 공간으로서 상념하거나 채를 나누는 분절의 공간으로 상용화하는 일상의 연장으로 보았던 점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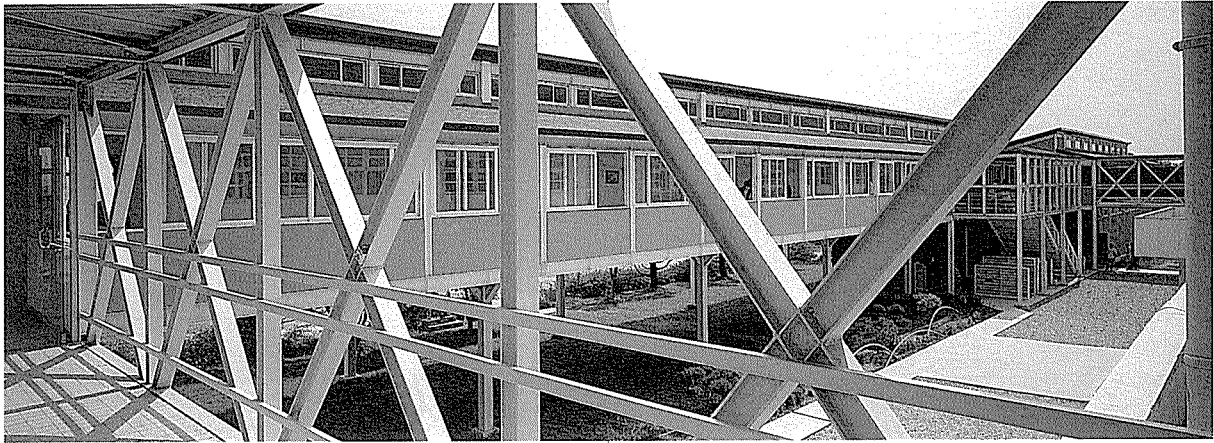
### 재생과 성장

#### Rehabilitation and Growing

재생이란 의미가 특별히 좋지 않은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교육형식의 개선

과 특성화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교가 재생이란 의미를 담아 탈신의 의미가 약해지거나 없을까 해서다. 한빛고등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를 개축하고 증축한 변신을 했고 형식도 초등에서 고등으로 바뀌는 대변신을 했다. 기독교 정신과 창의적인 교육,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의식하는 기숙사의 생활 등이 이미 남다르다. 마당의 의미는 무엇으로 찾을 것인지 의문과 미지의 태도 등이 다분하나 직설적인 마당의 공간적 배려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동과 동 사이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간극과 사이의 설절이며, 여백으로 의미화 되어 있다. 그 의미는 전통의 마당과 사라진 그 의미의 복원이다. 사라진 마당, 상업성과 공동체의 의식이 희박한 그 사유의 비장소적 소유성이 가져가 버린 마당의 고유한 의미를 작가는 이 채와 채 사이의 공간을 지각함에서 그 실상을 복원하고자 고심한다.

이용하는 학생이거나 누구라도 그들이 자연과 건축을 동시 지각한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건축적 공간지각과 그들의 시간이 그 곳에서 즐겁다면, 그들이 그 곳에 있을 때는 건축을 지각하고 그들이 그 곳을 바라본다면, 그 곳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면, 그 곳은 작가의 소망대로 지치지도 무겁지도 무료하지도 않은 소생하는 성장의 장소가 된다. 종교적인 의식성이 강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곳은 사실적 표면보다는 사의적인 실재(Presence)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건축의 공간분할 등은 다양하나 중심체의 구상이 잘 보여지기 어려운 평이한 공간성을 지니므로 나열의 범주와 책정이 구획을 결정하고 열린 교실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빛고등학교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고질적 공동체의 관계 결속이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수평적으로도 또는 역방향으로도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이 학교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고심했는지는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요구에 부응하는 수적인 균형과 배분이 주도적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자랄 수 있는 성장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대체로 학교의 집중력은 학교 본부가 있는 업무공간 쪽으로 지향하는데 이 학교의 경우는 지상 1층을 개방함으로써 보기 드문 파격적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동은 새로운 처방의 변신에도 불구하고 이 전의 역사를 교차하는 시선의 겹침으로 유지하며 가볍게 구성된 현재는 기존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화와 차별, 지나간 시간의 건축이 다시 덧씌워지는 계획의 치밀한 의도가 여러 측면에서 단서로 나타난다.

채와 채 간의 간격에 수립되는 마당으로 설정된 공동체적 장소, 구축성을 달리한 형식의 구분에 의한 표질의 차연(difference), 시각적 겹침에 의한 시차의 극복과 동시성, 동질성 획득 등이 주요하게 보여지는 요소이다. 축조방식면에서는 작가의 건축적 미래관과 기존의 역사성을 분해한 가볍지 않은 구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대건축의 매끄러움(Sleek)을 축소처럼 웅기시킨 하이테크의 건축기술은 생물처럼 이들의 표질감을 더욱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꿈틀대게 한다. 장 누벨(Jean Nouvel)의 아랍문화원의 조리개에서 더욱 가볍게 겹쳐 보이고 시선을 다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수법으로의

전개는 마치 과거를 정지되지 않은 전동차에 싣고 어디든 지 왕래하며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덧댄듯 겹쳐져 시간을 감싼 타임머신(Time Machine)은 현재와 과거를 자유로 왕래하며 어제의 공동체와 오늘의 공동체를 결합하고 그들의 미래를 구축해 간다.

### 공동체의 실현

#### Rising of Community

이 학교의 남다른 실체는 공동체 구성에서 그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이념이야 어느 학교는 없겠는가. 하지만 이 곳은 고등학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집합의 개념, 즉 공동체적 집합현상이 강하게 부각된다.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농촌에 정주한 한 단위의 마치 조류서식지처럼 느껴지는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한 때 강하게 나타났다. 연수시설이나 주거 등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이 등장했었고, 고등학교로 단계를 넘어서 구축된 예는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화의 척도는 미분화되는 과정, 즉 성장하는 과정에서 증진되어진다고 본다.

이 학교의 가치는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현실의 구축성의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낸 문화적 성장을 보여준 점이다. 작가의 현실부정으로부터 출발한 농밀한 현실의 애착이 이루어 낸 하나의 시대적 증표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건축, 이 시대의 저변(Low Tide)을 이끌 예의 하나로도 보인다.